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IAEA 검증 종합보고서 존중”

### 자체 심층 분석 중...조만간 발표 라파엘 총장 방한 검증 내용 설명 우리측 보고서 IAEA 판단 반영

정부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일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다만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을 고려해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히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한국에 와서 설명할 것”이라며 “저희 기술 검토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답했다.

박 차장은 또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7월부터 진행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전일 공개했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21년 8월부터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보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전일 공개된 IAEA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도 우리 측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보고서에 포함된다.

박 차장은 “검토 보고서가 언제쯤 발표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우려 등 큰 어중편 아니라 플랑크톤 등 세밀한 어중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 담보될지를 포함해 여러 형태에 대해서 양자 간에 어떤 협력을 할지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 더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후쿠시마 방류 보고서 제출 관련 정부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 핵협의그룹 이달 하순 서울서 첫 회의

### 차관보급서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

한국과 미국 간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7월 27일)을 즈음한 이달 하순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 간 ‘워싱턴선언’ 합의 후 3개월 만의 후속 조치로, 양측은 최근 NCG 첫 회의의 시점과 장소, 의제 등에 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첫 회의의 일정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상당히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NCG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견되는 워싱턴 선언 합의 사항 중 하나로 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첫 회의를 미국 워싱턴DC가 아닌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워싱턴선언의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첫 회의부터 틀을 잘 잡는 게 중요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는 애초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첫 회의에서 양국 국가안보장관의(NSC)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국가안보실 김태호 1차장이, 미국에서는 커트 캠펀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카운터파트로 회의에 참여할 전망이다.

캠펀 조정관이 미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간에 차관급 채널인 ‘확장역제전략 협의체’(EDSCG) 등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만큼 향후 회의가 정착되면 차관보급으로 재조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NCG는 확장역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밀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한미 간에 신설하기로 한 상설 협의체다.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네 차례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그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한미는 첫 회의부터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미국 핵 전력에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실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윤 대통령 “정부 R&D 투자,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 R&D(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최식에 참석,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정부 R&D 나뉘 먹기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9월 미 뉴욕대 방문 당시,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

청해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특히 재외 과학기술인들에게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자유 확장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연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마음껏 연구하고 교

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최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참여한 과학기술 관련 부스들도 둘러보며 이들을 격려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군, 北 정찰위성 수거...“군사적 효용성 없어”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탑재됐던 위성체 ‘만리경 1호’ 주요 부분이 우리 군에 인양됐다. 한국과 미국은 인양된 정찰위성 부품을 공동조사한 결과, ‘만리경 1호’는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 우주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지난 5월 31일 시작된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추락한 지난 5월 31일 시작된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군은 이렇게 판단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인양한 ‘만리경 1호’나 발사체 잔해의 모습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인양한 부품이 구체적으로 알려질 경우, 북한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등 군사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군이 인양한 잔해 중에는 위성체에 달린 카메라 등 광학장비나 부품, 광학 카메라가 들어간 경통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한사협의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ODERN    시공문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